

초상화·풍속화·산수화 ... 그림은 그 시대를 말한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 역사

홍순대 지음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야기나 글 외에도 그림, 조각 등 다양한 예술품으로 시대를 정리할 수 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나름의 흔적을 남겼다. 동굴벽화는 그 대표적인 예다.



종이가 보편화된 후에는 글과 그림이 역사를 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됐다. 물론 그러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조선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기록문화가 풍성했다. 유교문화와 선비문화 영향 때문이다. 초상화, 풍속화, 산수화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과 문화는 생동감이 있고 사실적이며 해학적이다.

그림이 전하는 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발견됐다.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의 저자 홍순대 작가가 펴낸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 역사'는 조선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의 관계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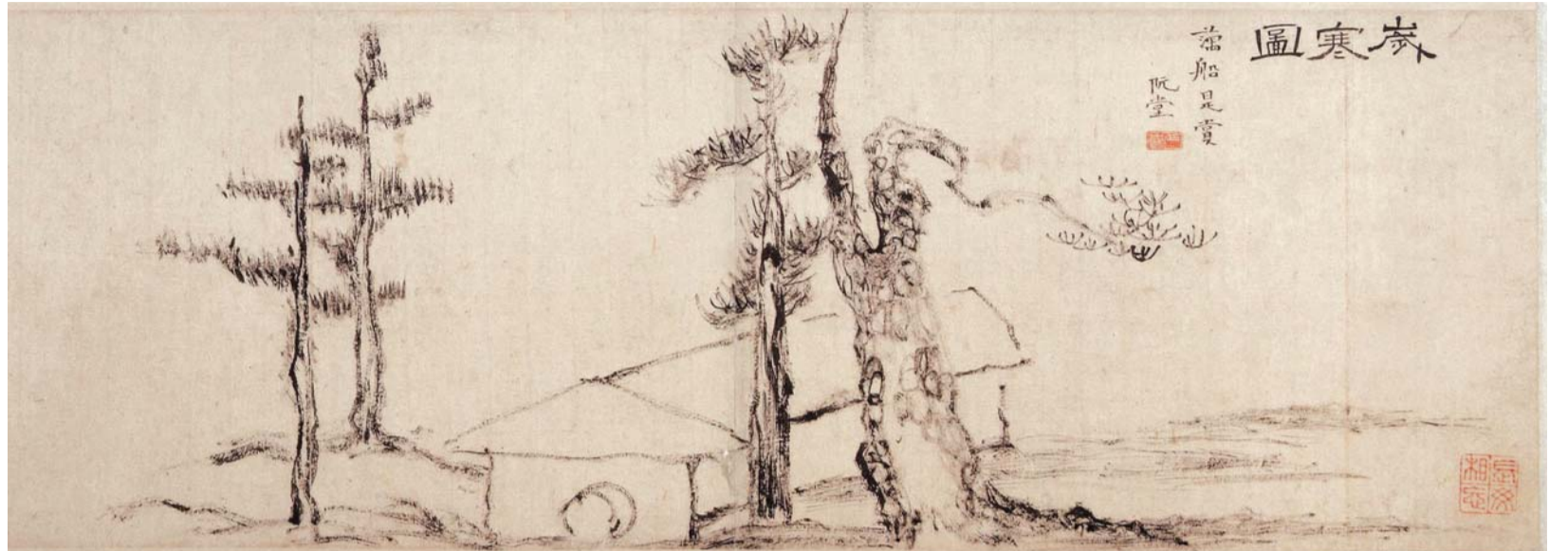
이성계의 개국 미륵불 현신 기원 '몽유도원도' 상충부 이야기 담아 김홍도 풍속화에 백성들 삶 기록 '세한도'에 담겨진 대학자의 마음 매천 초상화에 불굴의 의지 투영

림을 통해 들여다본다. 책은 모두 5개의 큰 주제로 엮였으며 그림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 번째 이야기 '고려인가 조선인가'는 미륵불 현신을 기원하며 새 세상을 꿈꿨던 이성계의 조선 개창에 관한 것이다. 이성계는 쇠락해가는 고려 왕조를 대체할 새 나라를 열원했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금강산에서 사리갯춤구를 모시고 미륵불 현신을 기원했다.

이는 정치적 야심을 종교와 결합해 다지는 행위였다. 사리구 백자합에는 이성계 자신의 이름과 부인 강씨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1만여 명의 시주와 영원을 담은 기록문이 있다. '업연히 군주가 재위하고 있었고 수많은 권문세족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던' 때에 이러한 행위는 자신감의 발로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충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권력욕에 눈먼 수양대군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한 안평대군과 그가 아낀 화가 안견의 삶이 주 내용이다. 안평은 꿈에서 도원동을 유람하고 안견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 때만 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교분도 두터웠다.



제자인 이상적이 유배와 무관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마음이 고마워 추사가 그려준 '세한도'.

그러나 저자는 "몽유도원도" 발문에 등장하는 세명 중 최항·신숙주는 솟을대문과 고대광실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며 "최항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한 후 그 정당성을 단종에게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조선 후기의 백성들의 삶을 풍속화로 들여다보는 주제도 있다. 세 번째 그림은 기록화 의미를 지닌 풍속화를 조명한다. 풍속화의 대표 화가는 김홍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강세황에게 교육을 받으며 서화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홍도의 풍속화 가운데 '타작'은 당대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속에는 풍년을 맞아 타작을 하는 장정들의 밝은 표정이 살아 있다. 반

면 벗단 위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앞에는 술병까지 놓여 있다. 분명 지주이거나 마름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원은 이처럼 민초들의 삶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지배층의 허위를 드러낸다.

네 번째 이야기는 풍상의 세월을 이겨낸 '세한도'에 얽힌 내용이다. 이 그림은 추사가 제자인 이상적이 자신을 유배와 무관하게 여일하게 대하는 마음이 고마워 그려준 그림이다. 추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왕족의 일원으로 청 학자들과 교류하며 초서체와 금석문을 남긴 대학자의 심사가 고스란히 전해온다.

마지막은 구한말 조선 선비를 자처하며 자결한

매천 황현을 다룬다.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매는 당대의 시대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채유신 화벽의 심상이 투영된 듯하다. 일반적인 초상화와 달리 '윤곽선 없이 색채와 수묵으로 유복의 형태를 그린 것'은 그 같은 매천의 불굴의 정신을 투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저자는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백성은 곧 우리 삶의 궤적이다. 그 백성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누군가의 화폭에 그려질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화폭에서 우리를 볼 것이며 이 땅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말한다.

<인문서원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앨리스 앨리스 하고 부르면

우다영 지음

세상은 논리적 인과관계보다는 무수한 우연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작가가 있다. 2014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우다영 작가가 두 번째 소설집 '앨리스 앨리스 하고 부르면'을 발간했다. 첫 소설집 '밤의 진조와 연인들'을 출간한 이후 2년 만의 신작이다. 이번 소설집에는 2020년 현대문학상 후보작이었던 '창모' 등 8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다양한 시간간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미로처럼 엮어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해변의 미로'에서 작가는 이곳과 저곳 너머의 "세계가 이어져 있고" 그것의 경계가 "눈꺼풀 한 겹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려낸다.

표제작 '앨리스 앨리스 하고 부르면'은 특유의 섬세하고 지적인 문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면을 펼쳐낸다. 작가는 현재뿐 아니라 다른 곳의 과거와 미래까지 조망하며 삶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얼핏 작품 속 인물은 길을 잃고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그림에도 삶을 지속하게 하는 신비로운 가능성들을 만날 수 있다. '매조와 근사'는 사춘동생을 잃은 이야기이지만, 주인공인 나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남태평양의 바닷속을 본다. 문득 실제로는 마주할 수 없는 어느 시공간이 세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한편 조태환 문학평론가는 "우다영의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아름답고 충실하게 그려내기 때문이다"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 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상빈 지음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사례를 담은 책이 발견됐다. 오상빈 광주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펴낸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는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을 다룬다.



은둔형 외톨이는 대부분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지낸다. 이들이 고립생활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 특성 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있다. 오 센터장은 "고립생활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타인과의 관계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 '극단적 인지적 왜곡'으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지 않는다.

오 센터장은 무엇보다 가족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 교사나 또래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은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전 생애를 거쳐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책에는 은둔형 외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또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고립 생활하는 사람이 외톨이가 됐던 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오 센터장은 "개인 상담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평가에 대해 객관화를 시도한다. 가족 상담은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회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방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술과학 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

황현 지음

'와인은 역사인 동시에 철학이고, 문학이다' 와인의 뿌리부터 와인 등급의 에피소드까지, 와인인연계인 역사·철학·문학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은 와인과 인문학의 연관성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34년간 방송사 기자로 활약한 저자 황현은 유럽에 장기 체재하던 당시 와인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세계 유명 와인너리를 방문하며 와인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수집한 그는 여기에 본인의 체험기를 더한 와인 이야기를 온라인 상에 연재했고, 이번에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책은 '와인의 깊은 세계', '붉은 포도에 얽힌 풍성한 이야기', '청포도의 깊은 품미 이야기', '와인을 둘러싼 이야기들'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먼저 와인의 특징과 양조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포도 품종 소개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의 세계 유명 와인 산지 여행을 들려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빈티지부터 와인병과 잔의 세계, 어울리는 음식, 프랑스 와인 등급의 역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와인 초보자들에게는 와인이라는 문화의 뿌리부터 성장의 역사까지를 두루 알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마시는 데 유익한 정보와 에티켓을 전달하며,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깊이 있는 역사와 철학, 문학적 연계 스토리를 통해 와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와인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술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며 "이 책을 통해 와인에 대해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바란다"고 전했다.

<시공사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